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연구 동향

노대영, 김동욱[†], 심하은

인제대학교

(pedkim@inje.ac.kr[†])

최근 전세계적으로 소아 및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여러가지학성이 있으나 대체로 유전적 요인과 환경오염인한 많은 allergen에 노출이 되는 것이 원인으로 추측된다. 아토피 피부염은 현재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약품으로는 주로 면역억제제가 사용 된다. 면역억제제는 크게 Glucocorticoid 류, Cytostatic 류, Interferon류, 항체 의약품 류 등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면역억제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키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고형당, 간 및 신장 손상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 Th2 cell의 활성이 발견되어 유발되는 cytokine인 IL-4, IL-13, IL-22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물이 개발이 대표적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한방소재의 항 아토피 효과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런 한방소재를 바탕으로 한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주는 기능성 화장품에 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